

광주시·전남도 재난대책본부 가동...사고 수습 총력

광주시 1월 4일까지 애도기간 설정...5·18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 설치 사상자 이송·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재난의료 3단계 '코드 오렌지' 발령 중앙재난본부 "역량 총동원 피해 최소화"...통합지원센터 조속 운영키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지자체와 정부 각 부처에서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사고 여객기 탑승객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는 점에서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강기정 시장 주재로 상황 회의를 열고 재난 상황 및 탑승자 명단 파악, 사상자 병원 이송 준비,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고 발생 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를 꾸리고 사고 현장을 다녀온 뒤 오후 4시에 지대본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고수습을 위해 구조·구급인력 차량 현장 지원을 위한 공직자 등을 파견했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지원반은 사·구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1월4일까지 7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애도 기간 중 광주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조기를 계양하고, 연말연시 행사는 취소 또는 애도 분위기에 맞게 간소화한다.

특히 연말인 31일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취소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즉각 사고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안국제공항과 부상자들이 이송된 목포병원 등에 직원들도 파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본부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 지원 및 대처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조정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구조·구급은 소방청,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은 국토교통부,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은 지자체에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조정관은 피해자 유가족 대기소 설치 및 일대일 전담 공무원 지정 등 통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운영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께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이날 항공안전정책관 산하 항공안전정책과장에 광영필 전 항공교통과장을 임명했다.

항공재난 대응과 안전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항공안전정책과장 자리는 전임 장동철 과장이 지난 20일자로 항공교통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열흘 가까이 공석이었다.

이번 인사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이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치권 “수습 만전 다해 달라” 정부에 당부

여야 “국회·당 차원 정부와 협조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할 것”

정치권도 29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만전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페이스북에서 “관계 부처와 당국은 절차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도 정부와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해야 한다”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정확한 탑승객 확인을 통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사고 구조와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이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소망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적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려다 취소하고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로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행안위·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현재까지 사고 관련 수습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여당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인명 구조를 당부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명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 당국이 빠르게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정부에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박찬대 원내대표와 체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관련 당국은 피해 수습과 사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급 상황으로, 민주당도 신속한 사고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돕겠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태국 정기편 운항 20여일 만에 참사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무안-태국 간 첫 정기편을 운항하면서 동계 지역 여행객 유치에 나섰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8일 밤 오후 8시 50분 무안국제공항을 출발, 태국 방콕을 향하는 정기편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매주 화·목·토·일 무안-태국 간 정기편을 운항해왔다.

동절기 겨울방학 시즌과 맞물려 오후 8시 50분 무안공항을 출발하고 오전 8시 30분에 도착 예정인 정기편을 운항해왔다.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점 등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도 잇따랐다.

앞서, 제주항공은 코로나 19로 전면 운항을 중단했던 무안-제주 노선도 지난 4월부터 4년 만에 재취항하는 등 정기노선 유지를 통한 여행객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이 합작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운항 횟수와 탑승객 수, 규모 면에서 국내 LCC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다. 2005년 8월 국내-국제선 정기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이듬해 제주-김포 노선에 처음 취항한 뒤 2009년 3월 인천-오사카 간 정기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까지 영역을 넓혔다. 국내 LCC로는 첫 국제선 취항으로 기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이익 급감을 겪은 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정착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 LCC 중 가장 많은 4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50개 도시, 85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 수는 1230만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 구조는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가 50.37%로 1대 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이 7.84%로 2대 주주로 올라가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안공항 사고 전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겪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